

우리말 성서 뜻기 번역에 대한 제언

이사야*

1. 들어가면서

대한성서공회는 『공동번역성서』(1977)의 뒤를 이어 『공동번역성서 개정판』(1999),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61)의 뒤를 이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이하 개역),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의 뒤를 이은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2001, 이하 『새번역』)을 연이어 번역 출간하여 한국 교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우리말 번역 성경이 출간될 때마다 끊임없는 비평과 논란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그 비평과 논란 한 가운데에는 성서 번역 원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경 번역의 성격과 특징은 그 번역 원칙과 직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성서 번역 원칙은 직역(literal translation, 문자적 번역), 의역(free translation, 자유역), 형식적 일치(formal correspondence),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¹⁾ 이중 현재 한국 개신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우리말 성서라고 할 수 있는 『개역』이 형식적 일치의 번역원칙을 따르고 있는 반면, 『새번역』은 역동적 동등성의 번역원칙을 적용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번역원칙을 적용한 우리말 성서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간직하고 있다. 본 논문은 번역 원칙에 따른 우리말 성서 『개역』과 『새번역』에 나타나는 뜻기 번역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우리말 해설 성경의 필요성과 다음 세대의 성서 번역을 위한 비평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말 성서 뜻기 번역

룻 1:4-5 오르바 ... 룻, 두 아들 ... 남편 / 룻 ... 오르바, 남편 ... 두 아

* 남서울대학교 교수, 구약학.

1) 나채운, “표준새번역에 대한 바른 이해(I)”, 『기독교사상』 418(1993. 10), 110-114.

들

『개역』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룿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년 쯤에 ⁵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표준새번역』⁴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룿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십년 쯤 살았다. ⁵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개역』과 『새번역』에서 두 며느리가 나오는 순서가 다르다. 마소라 본문과 『개역』은 ‘오르바 ... 룿’ 순으로 나오지만, 『새번역』은 ‘룿 ... 오르바’ 순으로 소개한다. 『개역』에서 오르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룿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것 때문에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이고 기론의 아내가 룿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룿기 4:10에 따르면 룿이 맏며느리이다. 『새번역』은 난외주에서 ‘말론과 룿, 기론과 오르바의 부부 관계의 혼란을 막으려고 순서를 바꾸어 기록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 순서가 오르바-룿의 순으로 나오는 것은 룿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학기법 때문이다. 1:2에서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기론으로 나오지만, 4:9에서는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론-말론의 순으로 나오고 있다. A(말론)-B(기론)-B'(오르바)-A'(룿) 순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교차대구적인 표현이 룿기에는 흔히 나타난다.²⁾

5절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וּתְשׂוּרָה הָאִשָּׁה מִשְׁנֵי לְדִידָהּ וּמֵאִישָׁהּ)’에서 『새번역』은 죽은 사람의 순서 또한 ‘남편 ... 두 아들’ 순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것을 염두에 둔 번역인 듯하다. 나이다(Nida)와 드 바(De Waard)도 ‘without her two sons and her husband’를 ‘without her husband and her two sons’로 바꾸어 번역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³⁾ 칠십인역과 페쉬타역 또한 ‘남편’을 ‘두 아들’ 앞에 위치시켰다. 이는 아마도 죽은 순서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듯하다. 『새번역』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난외주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룿기에 자주 나타나는 문학적 특성으로서의 교차대구(chiasmus)로 인해 등장인물의 순서가 바뀐 점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해

2)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룿기』,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714.

3) J. de Waard and E. A. Nida, *A Translator's Handbook on the Book of Ruth*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3) 9.

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말 해설 성경의 출간이 필요한 이유이다.

룻 1:8 어머니의 집 / 친정

『개역』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새번역』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 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신들의 ‘어머니의 집(בֵּית אִמָּה)’으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칠십인역은 ‘어머니의 집’ 대신에 ‘아버지의 집(father’s house)’으로 읽으며, 폐쉬타역은 “너희의 장소(Ort)와 부모의 집으로”로 확장하여 읽는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된 여인은 보통 친정으로 돌아갔다. 구약성서에서 나오미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말의 경우, 과부가 된 다말은 유다의 명에 따라 아버지의 집(בֵּית אָבִיךָ)에 가 있게 되고(창 38:11), 레위기 22:13에서도 이혼을 당한 여인이 아버지의 집(בֵּית אָבִיהָ)으로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고, 『새번역』은 בֵּית אִמָּה를 역시 친정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유독 룻기에서만 과부가 된 여인들(룻과 나오미)을 아버지의 집이 아닌 어머니의 집으로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집이나 어머니의 집이나 모두 우리말에서는 모두 친정(親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나오미가 더 이상은 자신이 두 며느리의 시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친정의 어머니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⁴⁾ 가부장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인격이나 지위가 억압되고 무시되는 사회 구조에서 소외된 여인들을 통해 숨어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룻기의 초점이 남성이 아닌 여성 중심이라는 점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할 때에, 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버지의 집’ 대신에 ‘어머니의 집(בֵּית אִמָּה)’을 사용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룻 1:22 보리 추수 /보리를 거두기

『개역』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새번역』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

4) 이샤야, “모압 여인의 하나님: 룻1:1-22에 대한 주석적 연구”, 『신학논단』 69 (2012), 227.

작할 무렵이었다.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음을 알려준다. 보리 수확은 이미 6절에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연관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새로운 희망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2절은 1장 전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확의 풍족함의 가능성이 굶주림을 완화시키며, 서론 이후로 여인들의 몫이었던 이야기가 룯과 보리 수확이라는 두 가지 신호에 의해 다시 되돌려진다고 할 것이다.⁵⁾ 주목할 점은 마소라 본문에서 전치사+명사연계형을 사용한 ‘비테히라트 크찌르 스오림(בתחלת קציר שערים)’을 『개역』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로, 『새번역』은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팔레스틴의 보리 수확은 4-5월이다. 보리는 봄에 거두어 들이는 것이므로, 보리 수확의 경우를 추수(秋收)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따라서 『새번역』의 ‘보리 거두기’는 단지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번역한 것이 아닌 한자어 번역이 빚어낼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민영진은 이 구문을 ‘보리 수확(收穫)을 시작할 때’라고 번역하면 이런 문제는 피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⁶⁾ 이는 2:21의 ‘아드 임-킬루 에트 콜-하카찌르 아세르-리(עד אם-כלו את כל-הקציר אשר-לי,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새번역』/‘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개역』)’와 2:23의 ‘아드-클로트 크찌르-하스오림 우크찌르 하히팀(עד-כלות קציר-השערים וקציר-החטים,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새번역』/‘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개역』)’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룯 2:1 유력한 자 / 재력이 있는 사람

『개역』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새번역』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룯기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자이자, 룯기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이쉬 깃보르 하일(איש גבור חיל)’로 소개된다. 하일

5) Phyllis Trible, “룯기: 한 여인의 인생극(1)”, 조예연/류호준 역, 『구약신학저널』 5 (2001), 302.

6)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룯기』, 729.

(חיל)의 사전상의 의미는 strength, efficiency, wealth, army 등이다. 여기에서처럼 이쉬(איש)와 함께 쓰일 경우는 ‘유력한 사람(mighty man of valour)’으로 번역이 되지만,⁷⁾ 4:11에서는 번성(efficiency)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새번역』은 חיל גבור איש을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옮기고 있다. 실제로 룿기에서 소개되는 보아스는 넓은 토지와 많은 하인들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풍부한 재력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룿기에서 보아스를 가리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많은 밭과 하인들을 소유한 재력가였음을 말하는 데 지나는 것이 아니다. 4장에서 보아스가 재판관을 주재하고 그 형식과 절차를 주관하는 것을 보면 그는 상당한 권세를 지닌 사람으로 보인다.⁸⁾ 히브리어 하일은 사람의 권세나, 재산,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유력한 자란 이 모든 면에서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다. 사사시대의 사사들 중 기드온과 입다의 경우 “큰 용사”로 불린 것이 바로 이 용어이다(삿 6:12; 11:1).⁹⁾ 몇몇 칠십인역 필사본들과 타르굼역, 그리고 아르메니안 전통은 2:1 마지막에 “그리고 그는 나오미에게 과부가 살 집을 주었다”를 덧붙이고 있다. 이는 나오미와 룿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다.¹⁰⁾ 무엇보다 룿기 3:11에서는 보아스가 룿을 가리켜 현숙한 여인(אשת חיל)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여인의 정숙, 능력(ability, efficiency of a woman)을 의미하면서 חיל גבור איש과 조화를 이룬다. 이런 의미에서 חיל גבור איש은 단순히 재력이 있는 사람보다는(faculty, wealth, landowner, braveman 등 여러 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¹¹⁾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룿 2:1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개역』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새번역』 “दै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요. 이제 दै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दै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7) BDB, 150, 298-299.

8) 김의원, 민영진, 『사사기, 룿기』, 735 참조.

9) 이사야, “모압 여인의 하나님”, 235.

10) E. F. Campbell, *Ruth: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Notes and Commentary*, AB 7 (New York: Doubleday, 1975), 85.

11) HALOT 1, 311.

하나님의 이름 יהוה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번역성서가 등장할 때마다 끊이지 않았다. 『새번역』은 구약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읽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네 글자(יהוה)를 『개역』의 ‘여호와’ 대신 ‘주’로 표기하였다. 이는 주전 3세기부터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LXX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라고 번역한 뒤로, 주후 4세기 라틴어 불가타역이나 16세기 루터의 독일어역, 17세기의 영어 흠정역 『제임스 왕 역본』 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라고 번역하였고, 원어에서 직접 번역된 세계의 주요 번역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번역할 때에 ‘주’라고 번역했던 것에 기인한다.¹²⁾ 그러나 모든 יהוה를 ‘주’라고 일괄적인 번역을 할 경우, 고유명사로서의 יהוה가 가지고 있는 유일신적인 신앙고백이 약화되기 쉽고, 이를 ‘주(the Lord, der Herr)’라고 번역한 세계의 권위있는 번역본들에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말 성경에서만 등장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있다. RSV의 경우 the LORD, the God of Israel, Luther Bibel의 경우 dem HERRN, dem Gott Israels로 모두 (고유)명사 ‘야웨/아도나이(יהוה)’와 명사구 ‘엘로헤 이스라엘(אלהי ישרא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서로 동격(יהוה=אלהי ישראל)으로 나타나지만, 『새번역』처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יהוה의 고유명사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꾸며주는 관형사처럼 보이게 된다. 즉 우리말 성서에서 יהוה를 ‘주’로 번역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위치시키는 경우엔, 고유명사의 성격을 사실상 상실해 버리고 만다. 이 또한 해설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다.

룻 2:16 곡식 단 … 곡식 다발 / 곡식 단 … 단

『개역』¹⁵⁾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¹⁶⁾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새번역』¹⁵⁾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¹⁶⁾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개역』과 『새번역』의 ‘곡식 단 사이에서’는 마소라 본문의 ‘벤 하아마림(בין העמרִים)’을 번역한 것이고(15절), 『새번역』의 ‘단에서’는 ‘민-하쯔바팀(מְדַבְּבָתִים)’을 옮긴 말이다(16절). BDB는 쯔바팀(צבתיים)의 의미를 bundles of

12)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머리말.

grain으로 말하고 있으나¹³⁾, 히브리어의 하쯔바팀(הצבתים, 『개역』의 ‘줍’)은 아직 단으로 묶어서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15절의 하아마림(העמרים, 영어의 the bundle)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הצבתים은 사람이 낫질을 하면서 왼손에 움켜쥐고 있는 곡식의 양을 가리키며, 그것이 아직 묶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עםמרים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Luther Bibel도 15절의 העמרים과 16절의 הצבתים을 모두 ‘den Garben’으로 번역해서 히브리 단어상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한글판』이 옮긴 ‘줍’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쥐려고 손가락을 오그린 손, 혹은 한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의 단위’¹⁴⁾로서 히브리 단어 הצבתים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뉘티 3:7에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한 후에 곡식 단(הערמה 하아레마) 더미의 끝에 놓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의 곡식단은 이미 쪼갠을 마친 상태로 잘 묶어둔 상태를 말하는 반면 뉘티 2:16의 צבתים은 아직 단으로 묶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줍’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뉘티 3:7 발치 이불 / 발치

『개역』 … 뉘티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새번역』 … 뉘티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개역』의 ‘발치 이불’과 『새번역』의 ‘발치’는 모두 칠십인역¹⁵⁾의 영향을 받은 번역인 듯 하다. 마소라 본문 ‘바트갈 마르겔로타브(ותגל מרגליתו)’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발들을 들었다’로 ‘발치를 들었다’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완곡어법(婉曲語法, Euphemism) 중 하나이다(삿 3:24; 삼상 24:3; 왕하 18:27= 사 36:12; 사 7:20; 겔 16:25 등 참조). Luther Bibel과 RSV 역시 ‘deckte zu seinen Füßen auf’와 ‘uncovered his feet’로 번역하여 마소라 본문의 단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개역』의 ‘이불’은 본문의 의미는 살려줄 수 있으나 이 일이 벌어진 장소가 타작마당의 곡식 단 더미인 것을 고려해 볼 때 보아스가 덮고 있는 것이 이불이 아닌 외투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3:4와 3:14에서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모두 ‘발치’로 옮기면서 유독 3:7에서만 발치 이불이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

13) BDB, 841.

1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제3권 (서울: 어문각, 1992), 3829. 이에 반해 ‘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땀나무, 짚, 푸성귀 따위의 묶음’을 지칭한다. Ibid, 제1권, 914.

15) και ἀπεκάλυψεν τὰ πρὸς ποδῶν αὐτοῦ (그녀는 발에까지 닿는 그의 긴 옷을 드러내었다).

룻 4:5 룻에게서 사서 /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개역』 …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새번역』 “ …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개역』의 ‘룻에게서 사서’는 마소라 본문의 ‘우메에트 룻(ומאת רות)’을 번역한 것으로, 본문비평을 고려하지 않은 번역으로 우리말 문법에도 맞지 않고 어색한 표현이다. 칠십인역과 타르굼역은 마소라 본문의 읽기를 따르고 있으나, 페쉬타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불가타는 우메에트(ומאת, 그리고 -로부터)를 ‘감 에트(את וג, 또한 -를)로 고쳐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ומאת의 일반적인 번역은 ‘그리고 …로부터(and from)’가 될 수 있으나, 마소라 본문이나 칠십인역을 따라 문자적으로 직역할 경우, 5절은 ‘당신이 …를 사는 날에(5a절) … 당신은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여인 룻에게서부터 사야 합니다(5b절)’로 목적어가 생략된,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번역이 나오게 되고 만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밭을 사는 일이 룻으로부터 사는 일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밭의 소유권이 나오미에게 있고(4:3), 미망인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이다.¹⁶⁾ 즉 밭은 나오미에게서 사고, 죽은 자의 아내인 룻을 얻는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으며, 룻이 목적어임을 나타내주는 전치사 ‘에트(את)’와 함께 사용되었음¹⁷⁾을 감안할 때, 『개역』의 ‘룻에게서 사서’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본문비평에 따라 『새번역』처럼 ‘룻을 얻다(사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게 볼 때 ‘미야드 노오미 우메에트 룻(נעמי וגם את־רות)’은 룻기 4:10의 ‘미야드 노오미 우감 에트-룻(נעמי וגם את־רות)’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오면서

번역은 번역이라는 말이 있듯이 구약성서의 원천언어인 히브리어의 문법과 형식, 그리고 그 의미까지도 완벽하게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16) R. de Vaux, *Ancient Israel vol.1* (Darton: Longman and Todd, 1961), 54.

17) E. F. Campbell, *Ruth*, 146.

이다. 번역자의 사명은 수용언어가 원천언어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성경은 그 본문 자체가 읽어서 이해하기에 쉬운 부분이 있는 반면에 쉽게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는 책이다. 번역의 생명은 원문과의 비슷함에 있으며, 그 비슷함은 비단 원문의 형식과 내용뿐만이 아닌 의미와 뜻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형식적 일치의 번역은 그 비슷함을 문법과 구조에 두는 반면 역동적 동등성의 번역은 두 언어 사이의 의미와 뜻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말 성서 룯기에 대한 몇 가지 번역에 대한 비평과 제언은 비단 번역 원칙에 국한된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개역』과 『새번역』은 나름대로의 원칙에 입각해서 저마다의 색깔을 지닌 자랑스러운 번역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은 해설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말 해설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대한성서공회는 『해설·관주 성경전서 개역한글판(독일성서공회판)』(1997), 『개역개정판』(2004)과 『굿뉴스스터디바이블 개역개정판』(2001)을 출간하여 해설 성경의 대중화와 올바른 성서해석에 적잖이 기여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 성서학자들이 집필하여 한국 교회와 신학계에 기여할 해설 성경의 출간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투고 일자: 2012. 10. 18. 심사 일자: 2012. 11. 9. 게재 확정 일자: 2012. 12. 26.)